

# 한국어 보조사 '-도'의 기능과 해당 베트남어 부사 'CŨNG'와의 비교

Hoàng Nguyễn Phương

Khoa Ngôn ngữ và Văn hóa phương Đông, Trường Đại học Ngoại ngữ - Tin học TP.HCM

phuongnh@huflit.edu.vn

**논문 초록**—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어 보조사 '-도'의 의미와 기능을 알아보면서 베트남어 부사 'cũng'과 비교하고자 한다. 베트남어 부사 'cũng'과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함으로써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들은 한국어 보조사 '-도'의 의미와 기능을 잘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이 연구는 한국인 베트남어 학습자들도 베트남어 부사 'cũng'의 의미와 기능을 잘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된다. 보조사 '-도'는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주요 기능에 대해 몇 가지로 한정되었다. 따라서 향후 추가적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각 기능과 사용에 대한 더 철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키워드**—한국어 보조사 '-도', 베트남어 부사 'cũng'

## I. 서론

### A.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는 한국어 보조사 '-도'의 의미와 기능을 살펴보고 이에 대응하는 베트남어 문법 형태소와의 유사점과 차이점의 비교를 바탕으로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보조사 '-도'의 의미와 기능을 잘 파악할 수 있음과 동시에 한국인 베트남어 학습자들도 해당 베트남어 부사 'cũng'의 의미와 기능을 이해하고 잘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어 보조사는 격조사처럼 문장에서의 역할을 결정하지는 않지만 내용을 더욱 분명하고 풍부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한국어교육의 초급 단계에 제시되는 '은/는, 만, 도'를 비롯하여 학습과정에서 심화될수록 '밖에, 뿐, 부터, 까지, 마다, 마저, 조차, 치고.....' 등 다양한 보조사들이 학습내용으로 제시된다. 외국인학습자는 이들 보조사를 정확하게 학습하고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의도에 맞는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고 한국인과의 의사소통이 더 원활할 수 있다.

보조사 중에서 보조사 '-도'는 사용 빈도가 높은 조사 중의 하나인 만큼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학습자들에게서 오류 또한 빈번히 발생하는 조사로 알려져 있다. '-도'의 오류는 대치 오류 뿐만 아니라 누락 오류도 자주 나타나는데 이는 보조사 '-도'의 기본적 의미와 용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문장들 사이에 존재하는 논리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보조사 '-도'의 올바른 쓰임은 문장내의 통사 정보보다는 그보다 높은 담화 논리의 지배를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1: p.146]. 다음은 국립국어원 [1: p.372]에서 수집한 예문이다.

(1) ㄱ. 엄마, 우리 사과도 사요.

ㄴ. 이 식당은 값도 싸고 분위기도 좋습니다.

위 예문 (1)을 보면 '-도'가 다른 위치에서 사용할 수 있고 위치에 따라 '-도'의 의미가 달라진다. (1 ㄱ)은 무언가를 산 후에 사과를 더 사자고 하는 것이다. 여기서 '-도'의 어떤 대상이나 사태에 포함하거나 더함을 나타낸다는 의미를 볼 수 있다. (1 ㄴ)은 한 음식점에 가서 여러 가지 장점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다. 이는 '-도'의 주로 '-도-도' 구성으로 쓰여 둘 이상의 대상이나 사태를 나열할 때 쓴다는 의미를 알 수 있다.

'도'는 문장을 구성하는 실질 형태소에 붙어 특정한 의미를 더해 주는 보조사이다. 보조사는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들 사이의 통사적 관계를 지정하는 격조사와는 달리 선행어에 특정한 뜻을 더하여 선행어가 문장에서 가지는 어휘적 의미를 한정하는 기능을 한다. 보조사가 더하는 의미는 각 보조사가 가지는 고유한 의미에 의해 구축된다. 보조사는 자신이 가지는 고유한 의미를 바탕으로 선행어가 문면에 실현되지 않은 요소와 어떤 의미 관계에 놓이는지를 나타내는 문법장치인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격조사가 문장을 구성하는 성분들의 통합관계에 관여한다면 보조사는 계열관계에 관여한다고 할 수 있다. 보조사는 선행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계열적 관계에 있는 목록들과 선행어와의 관계를 재정립하기 때문이다.

베트남어에서도 한국어 보조사 '-도'의 기능과 유사한 'cũng'이라는 부사가 있다. 한국어와 베트남어는 모두 담화를 구성하는 문장들 사이의 논리적 의미 관계를 표시하는 문법장치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들 형태소 간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학습자들이 쉽게 해당 문법소의 의미와 기능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된다.

## II. '도'와 'CŨNG'의 의미 기능

### A. 한국어 보조사 '도'의 의미 기능

지금까지 보조사 '-도'에 대한 연구는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본 연구는 한국어 외국인 학습자에 집중하기 때문에 보조사 '-도'에 관한 선행 연구에 제시된 기본적인 의미 기능과 용법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윤영숙[1]에서는 여러 학자의 연구를 살펴본 후, 다음과 같이 결론은 제시하였다. 보조사 '-도'의 기본 의미 기능을 나타내는 '역동', '역사', '포함' 등은 모두 동일한 '-도'의 속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이들은 모두 '-도'가 자신의 선행어를 담화맥락에 전제된 선행어의 동류에 더하는 기능을 나타낸다. 이 보조사 '-도'의 가장 고유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역동', '역사', '포함' 등의 주기능을 수행하는 '-도'를 생략하면 '-도'가 내포하는 전제가 제거됨으로써 문장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 속성은 '-도'가 강조나 감탄의 용법을 가질 때는 나타나지 않는데 강조와 감탄의 의미로 사용된 '-도'는 생략되어도 문장의 의미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 [1: p.149]. 위 내용을 바탕으로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 <한국어교수학습샘터>,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2>를 참고하며, 본 연구는 보조사 '-도'의 기본 기능 의미를 다시 제시한다.

보조사 '-도'의 의미 기능은 7 가지 나누게 된다. 다음은 '-도'의 의미 기능과 예문을 제시할 것이다.

① 어떤 대상이나 사태에 포함하거나 더함을 나타낸다.

(예) ㄱ. 나도 이제 늙었나 보다 [7].

ㄴ. 밥만 먹지 말고 반찬도 먹어요 [8].

ㄷ. 한나 씨가 오늘 아침에도 전화를 했어요 [2].

② 둘 이상의 대상이나 사태를 나열할 때는 주로 '-도-도'의 구성으로 쓰인다.

(예) ㄱ. 고구마는 구워도 먹고 삶아도 먹는다 [7].

ㄴ. 계란은 삶아도 먹고 익혀도 먹는다 [8].

ㄷ. 공원에는 한국 사람도 있고 외국 사람도 있었어요 [2].

③ 극단적인 경우를 들어, 다른 경우는 말할 것도 없음을 나타낸다.

(예) ㄱ.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얼씬거리지 못하게 해라 [7].

ㄴ.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지요 [8].

ㄷ. 저렇게 작은 아이도 하는데 네가 왜 못해 [2].

④ 기대에 못 미치지만 받아들임을 나타낸다.

(예) ㄱ. 오늘까지 어려우시면 내일까지도 괜찮습니다 [7].

ㄴ. 밥이 없으면 라면도 좋아요 [8].

ㄷ. 주스가 없으면 물도 좋아요 [2].

⑤ 정도를 나타내는 말에 붙어, 그 정도가 기대한 것보다 많거나 적음을 나타낸다.

(예) ㄱ. 가까워서 오는 데 오 분도 안 걸렸어요 [8].

ㄴ.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 열 명도 안 돼 [2].

㉞ 일부 부사어나 연결어미에 붙어 강조의 뜻을 나타낸다.

(예) ㄱ. 집 앞까지 갔다가도 그냥 왔지요 [7].

ㄴ. 아마도 마이클이 병원에 갔을 거예요 [8].

ㄷ. 그는 피곤한지 밥을 먹지도 않고 일찍 잠들었다 [2].

㉟ 놀라움이나 감탄, 실망 따위의 감정을 강조하는 데 쓰이는 보조사.

(예) ㄱ. 성적이 그렇게도 중요한가? [7]

ㄴ. 날도 참 덥네요 [8].

ㄷ. 참 똑똑하기도 하구나 [2].

또한 국립국어원(2: p.375)에서는 어찌 할 수 없는 상황임을 나타내는 ‘오도 가도/ 듣도 보도/ 빼도 박도 못하다’ 같은 표현에 쓰인 ‘도’는 동사 어간에 붙어 굳어진 것으로, ‘오지도 가지도/ 듣지도 보지도/ 빼지도 박지도 못하다’로도 쓸 수 있다.

(예) ㄱ. 우리는 생전 듣도 보도 못했던 새들을 카메라에 담느라 정신없이 셔터를 눌렀다.

ㄴ. 군인들은 갑자기 쏟아진 눈에 감혀서 오도 가도 못하게 되었다.

여기까지 보조사 ‘-도’의 의미 기능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보조사 ‘-도’가 담화하거나 문장을 만들 때 쉽게 활용할 수 있는데도 제약 사항이 있다. 보조사 ‘-도’는 주격 조사 ‘이/가’, 목적격 조사 ‘을/를’와 결합하여 사용되지 않는다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수학습센터, 문법·표현 보조사 ‘-도’).

(예) ㄱ. 너가도 왔니? (X) 사과를도 샀어요? (X)

ㄴ. 너도 왔니? (O) 사과도 샀어요? (O)

보조사 ‘-도’의 기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사용상 제약을 아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사용상 제약을 잘 파악하면 학습자의 오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B. 베트남어 ‘CŨNG’의 의미와 기능

Bui Thi Hoang Anh [3]에서는 ‘cũng’은 선행 연구에서 다른 접근 방식으로 언급되고 있으며 ‘cũng’에 대한 많은 개념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그중에서 ‘cũng’에 대한 Nguyen Duc Duong [4]의 연구가 가장 합리적인 연구라고 한다.

Nguyen Duc Duong [4]에 따르면 ‘Cũng có thể biểu thị sự tương đồng giữa các sự kiện, thực thể và nó được dùng thường xuyên sau các đại từ nghi vấn ai, ở đâu, khi nào, nào. Cũng đánh dấu quan hệ tương đồng hoặc gần như tương đồng giữa các *khung đề* (“Khung đề”: 문장의 시간과 상황을 표시하는 요소).

(‘Cũng’은 사건과 실체 사이의 유사성을 표현할 수 있으며, 의문 대명사 누구, 어디, 언제, 무엇 등 뒤에 자주 사용된다. ‘Cũng’은 문장의 시간과 상황을 표시하는 요소가 유사하거나 거의 유사한 관계를 나타낸다).

‘Cũng’의 의미 기능에 대한 말한다면 Do Thanh [5]에서는 ‘cũng’이 문장에 들어가면 유사성, 동시적, 상대성, 강조, 불리한 상황에 수행하는 행동을 표시한다고 제시하였다. 그리고 Nguyen Kim Than [6]에서는 ‘cũng’의 의미 기능은 어떤 사물의 행동과 상태의 동시적이나 유사성이나 상대성을 표시하거나 무조건적이거나 일반적인 방식과 반대되는 활동을 나타낸다고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cũng’의 의미 기능은 다음과 같이 다시 정리하고 재분류한다.

㉠ Biểu thị sự giống nhau về hiện tượng, trạng thái, hoạt động, tính chất của sự vật (사물의 현상, 상태, 활동, 성질의 유사성을 주장하다는 뜻을 표시한다).

(예) ㄱ. Anh đi, tôi cũng đi (당신이 가면 나도 간다).

L. Hôm qua mưa, hôm nay **cũng** mưa (어제 비가 왔는데 오늘도 비가 온다).

② Biểu thị ý hoạt động được tiến hành trong mọi hoàn cảnh, kể cả trong hoàn cảnh bất lợi (불리한 상황에서도 모든 상황에서 수행하는 활동을 표시한다).

(예) ㄱ. Trời mưa, tôi **cũng** đi (비가 오는데 나도 갈거야).

L. Thua, tôi **cũng** chơi (지는데 나도 할거야).

③ Biểu thị ý tương đối (상대성).

(예) Làm như vậy **cũng** được (이렇게 해도 된다).

④ Biểu thị ý đồng thời (동시적).

(예) Tôi mừng nhưng tôi **cũng** thấy lo (기쁜 한데 나도 걱정이 된다).

한국인을 위한 베트남어 교재에서는 'cũng'의 의미 기능은 다음과 같이 간단히 제시하고 있다. 베트남어 123 교재에서는 'cũng'은 언제나 형용사, 동사 앞에 위치하며 주체의 동일한 특징이나 행동을 표현한다고 하였다.

(예) ㄱ. Tôi là người Đức. Chị ấy **cũng** là người Đức. (나는 독일 사람이다. 그 여자도 독일 사람이다)

L. Anh Nam giỏi. Em trai anh ấy **cũng** giỏi. (남 씨는 잘한다. 그의 동생도 잘한다)

위 예문(ㄱ)에서는 다른 주어이지만 둘이 같은 국적이라서 비슷한 내용을 알려주고 싶기 때문에 'cũng'을 사용하였다. 예문(L)도 마찬가지로 주어가 다르지만 동일한 특징을 갖기 때문에 뒤 문장에서 'cũng'을 사용하였다. 'cũng'은 다양한 기능을 담당하는데 교재에서는 한 기능만 제시하였다. 이 때문에 한국인 학습자들이 대화할 때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할 수 없어 의사소통이 잘 안 될 수도 있다. 이에 III 절에서 본 연구는 보조사 '도'와 부사 'cũng'의 비교를 통해 학습자들이 보조사 '도'와 부사 'cũng'에 대한 의미 기능을 잘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게 도움이 될 것이다.

### III. 보조사 '도'의 용법과 베트남어 부사 'CŨNG' 대응 표현

선행 연구를 통해 보조사 '도'는 다양한 의미 기능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라고 본 연구는 보조사 '도'의 기능에 대응하는 베트남어 부사 'cũng'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보조사 '도'의 주기능을 선행어의 의미 자질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화하였다. 즉 보조사 '도'가 전제된 상황에 포함될 동류를 제시하는지 부정대명사나 극단적인 요소를 제시하는지를 살펴 '동류제시', '전체부정/전체긍정', '극단제시'로 나누었다. 그리고 앞 장에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최소양사' 표시 기능과 '병렬 관계' 표시를 '도'의 기능에 추가시켰다. '최소양사'란 극단제시 기능의 하나로 볼 수 있지만 '수량사'를 포함하는 특수한 구성을 기지므로 따로 분리하였다. 그리고 보조사 '도'는 선행어의 동류가 문맥이 아닌 동일 문장 내에 존재할 경우 반복된 '-도...-도'의 형식으로 사용되어 한정하는 요소를 동일하게 강조하고 나열한다. 이 또한 보조사 '도'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으므로 병렬 관계로 제시하였다 [1: p.150].

따라서 이 절에서는 이상과 같은 보조사 '도'의 주기능을 '동류제시', '전체부정/전체긍정', '극단제시', '최소양사', '병렬 관계', 등 다섯 가지로 한정하여 각각에 대응하는 베트남어 표현을 살펴보고자 한다.

#### A. 동류제시

보조사 '도'는 문장을 구성하는 거의 모든 성분과 결합하여 전제 문장이나 담화 맥락에 선행어와 동류가 존재함을 표현한다. 이 경우 '역시', '또한'의 뜻이다. 보조사 '도'는 속격조사와 일부 접속조사를 제외한 모든 격조사의 자리에 올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격과 목적격은 탈락되나 부사격조사는 탈락되지 않는다. 즉 보조사 '도'가 부사격 조사 자리에 올 때는 부사격 조사 뒤에 후접하여 조사 결합체의 형태로 나타난다. 보조사가 속격조사와 일부 접속조사를 제외한 격조사 자리에 분포할 수 있는 것은 이들 격조사가 명사구와 서술어의 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인 것으로 본다 [1: p.151]. 그리고 보조사는

격조사와는 달리 선행어의 통사 범주도 명사구나 그 유사 형태로 제한되지 않고 부사, 동사의 활용형, 자립적으로 쓰이지 못하는 어근에도 결합할 수 있다.

- (1) 민수도 수지에게 꽃을 주었어요.  
**Minsoo cũng** đã tặng hoa cho Suji.
- (2) 민수는 수지에게도 꽃을 주었어요.  
**Minsoo cũng** đã tặng hoa cho Suji.
- (3) 민수는 수지에게 **꽃도** 주었어요.  
**Minsoo cũng** đã tặng hoa cho Suji.
- (4) **이 쪽으로도** 시내에 갈 수 있어요.  
**Lối này cũng** có thể đi vào nội thành.

예문 (1)~(3) 은 보조사 ‘-도’가 각각 문장의 주어, 부사어, 목적어와 결합한 경우이며 선행어의 통사 범주는 모두 명사이다. 주격 조사와 목적격 조사는 탈락되었으나 부사격 조사는 탈락되지 않았다. 보조사 ‘-도’가 위치에 따라 화자의 의도가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베트남어 대응 표현을 살펴보면 부사 ‘cũng’이 같은 위치로 사용되며 뜻이 변하지 않았다. 예문 (4) 는 방향을 나타내는 부사격조사 ‘-으로’에 보조사 ‘-도’가 후접하여 ‘조사 결합체’로 사용된 경우이다. 베트남어 대응 표현에서도 방향을 나타내는 부사 ‘cũng’이 문장에 쓰였다.

위의 예문들을 통해서 보조사 ‘-도’가 ‘무엇이 포함되고 그 위에 보조사 ‘-도’의 선행어가 포함됨을 나타낼 때 베트남어 대응 표현에서 모두 부사 ‘cũng’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선행 문장이나 담화 상황에 전제된 동류에 선행어를 추가하는 경우 부사 ‘cũng’이 사용될 것이다. 그러나 ‘cũng’은 항상 주어 뒤 동사 앞에 위치하는데 이는 보조사 ‘-도’가 한정하는 성행어의 위치에 따라 변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 B. 극단제시

보조사 ‘도’는 가장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선행어로 제시되면 선행어를 한정하여 그 이상의 것 또는 그 이하의 것들은 당연히 모두 포함됨을 나타내는 극단제시에 사용된다. 즉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도 그러하나 다른 경우는 말할 필요도 없다’는 의미를 갖는 것이다 [4]. 극단제시는 최저 한계를 나타내는 ‘최소극단’과 최대 한계를 나타내는 ‘최대극단’을 모두 포함한다.

- (5) 그 사람을 **만난 적도** 없다.  
Tôi **cũng** chưa từng gặp người đó.
- (6) **세수도** 안 했는데 어떻게 나가요.  
Mặt **cũng** chưa rửa nữa thì làm sao ra ngoài được.
- (7) 대학생이 **이것도** 못 풀어?  
Sinh viên mà cái này **cũng** không giải được hả?
- (8)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Con khỉ **cũng** có lúc té xuống từ trên cây.

위의 예문 (5)~(8)에서 선행어로 사용된 ‘만난 적’, ‘세수’, ‘이것’, ‘원숭이’ 등이 보조사 ‘-도’와 결합하여 최대극단과 최소극단을 예시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예문 (5)~(7)은 어떤 주어진 상황이 성립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나타내는 최소극단 제시로 볼 수 있고, 예문 (8)은 나무에서 떨어질 확률이 가장 적은 것은 원숭이임을 전제로 ‘그 보다 못한 모든 것은 당연히 그러하다’는 최대극단의 경우를 나타내고 있다. 최대극단이나 최소극단은 모두 개연성의 최소치를 나타내며, 이를 통해 극단의 경우가 허용되면 그 외의 경우는 당연히 성립됨을 나타낸다 [1: p.153]. 따라서 이 또한 ‘-도’의 기본 의미인 ‘포함’에 해당한다. 베트남어의 대응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최소극단을 나타내는 예문 (5)~(7)에서는 부사 ‘cũng’이 쓰였다. 그리고 위의 (1)~(8)예문을 보면 한국어 보조사 ‘-도’가 주어, 부사어, 목적어와 결합할 때 ‘-도’의 위치와 의미가 다르지만 베트남어의 부사 ‘cũng’의 위치가 거의 바꾸지 않았다. 그러나 예문 (7)을 보면 부사 ‘cũng’이 주어 뒤에 붙이지 않고 대명사 뒤에서 위치하였다. 예문 (8)은 베트남어에서도 한국어와 같은 문장이 있고 한국어의 (8)과 같은 의미로 최대극단의 경우를 나타내고 있다.

### C. 전체부정, 전체긍정

운영숙 [1: p.154]에서는 보조사 '-도'는 비한정 명사인 '아무', '누구' 등의 부정 대명사와 결합하면 '전체 부정' 또는 '전체 긍정'의 의미를 나타낸다. '그 위에 또한'이라는 뜻을 표현하는 '-도'가 그 지시체가 한정되지 않은 부정 대명사와 결합하면 긍정문이나 부정문이나에 따라 전체를 긍정하거나 전체를 부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 (9) 아무도 안 왔다.  
**Chẳng** ai đến.  
 (10)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  
**Cái gì cũng** không biết làm.  
 (11) 누구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다.  
**Ai cũng** có thể làm được việc đó.  
 (12) 어떤 문제도 풀 수 있다.  
**Vấn đề nào cũng** có thể giải quyết.

예문 (9)와 (10)은 '-도'가 부정 대명사 '아무', '아무것'과 결합하여 전체 부정을 나타낸 경우이고 예문 (11)은 대명사 '누구'와 결합한 '-도'가 긍정문에 사용되어 전체 긍정을 나타낸 예이며 예문 (12)는 '-도'가 비한정 관형사 '어떤'의 수식을 받는 명사와 결합하여 긍정문에 사용되어 역시 전체 긍정을 표현한 예이다. 베트남어 대응 표현에서 예문의 뜻은 한국어 문장과 비슷하지만 그 외에 베트남어에서는 부정문이 될지, 긍정문이 될지 뒤에서 나타내는 동사나 부정어에 따라 결정된다. 예문 (9)처럼 부사 'cũng'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부정한 말 'chẳng'이 나와서 부정문이 된다.

#### D. 최소양사

전체긍정 또는 전체부정과 유사한 형태로 최소양사의 표현을 들 수 있다. 이는 보조사 '-도'가 수관형사 '한'과 '수량사'와 결합하여 '한+수량사+도'의 형태가 되어 "부정극어"가 되는 경우이다 ("부정극어"란 부정의 맥락에서만 출현하는 성분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때 수관형사 '한'은 본래적 수량 개념으로서의 '하나'가 아니라 주어진 범위 안에서 가장 적은 단위를 표시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즉 '한+양사+도'의 구성은 가장 적은 수량을 나타냄으로 부정을 강조하는 형태라 할 수 있다 [1: p.155].

- (13) 파리가 **한 마리도** 없다.  
 Một con ruồi **cũng** không có.  
 (14) 집에는 **한 명도** 없다.  
 Trong nhà một người **cũng** không có.  
 (15) 그는 **한 모금의 술도** 마시지 않았다.  
 Anh ấy không uống **dù chỉ** một ngụm rượu.  
 (16) 여기서 **10 분도** 안 걸려요.  
 Từ chỗ này, **không** mất **tới** 10 phút đâu.

예문 (13)~(16)은 각각 '한 마리도', '한 사람도', '한 모금의 술도' 등 수관형사 '한+수량+도'의 형태로 쓰여 정해진 범주 내에서 가장 적은 양을 부정하면서 전체 범주를 부정하는 부정극어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예문 (16)은 수관형사 '한'대신 '10'이라는 자연수가 쓰이기는 하였지만 이 또한 주어진 상황이나 범위 안에서 최소량을 나타내는 경우이다. 위의 예문들에서 알 수 있듯이 최소양사 표현인 '한+수량사+도'에 대응하는 베트남어 표현은 한국어 '한+수량+도' 표현과 비슷하다. 그 외에 베트남어에서는 예문 (15)와 (16)처럼 'không ... tới', 'dù chỉ' 등 같은 표현으로 표시할 수도 있다.

#### E. 병렬 관계

한 문장에서 두 가지 이상의 사실을 한꺼번에 열거하여 모두 강조하는 경우 한국어에서는 '-도...-도'의 꼴을 사용하여 나열한 사실이 다 동일함을 나타내거나 동일하게 강조한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도'의 주기능은 선행어의 동류가 담화 맥락에 존재함을 나타내는데 선행어의 동류가 한 문장 내에 모두 제시될 경우 '-도...도'의 형식으로 사용되어 제시된 요소를 모두 강조하는 것이다.

- (17) 바람도 자고 비도 그쳤다.  
 Gió **cũng** ngừng và mưa **cũng** tạnh.  
 (18) 그녀도 피아노를 칠 수 있고 나도 피아노를 칠 수 있다.

Cô gái đó **cũng** có thể chơi piano, tôi **cũng** có thể chơi piano.

(19) 이 음식은 **시기도** 하고 **달기도** 하다.

Món này **vừa** chua lại **vừa** ngọt.

(20) 그 학생은 **얼굴도** 예쁘고 **공부도** 잘 한다.

Học sinh đó mặt **cũng** xinh và học **cũng** giỏi.

(Hoặc: Học sinh đó mặt **vừa** xinh và học **cũng** giỏi)

(21) 나는 가고 **싶기도** 하고 가고 싶지 **않기도** 한다.

Tôi **vừa** muốn đi mà **cũng** không muốn đi.

위 예문들을 살펴보면 두 가지 이상의 요소가 한 문장 안에 나열되어 있는데 한국어 표현에서는 보조사 '-도'가 나열된 각각의 요소에 결합되어 '-도...-도'의 형식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베트남어의 대응 표현을 살펴보면 우선 'cũng...cũng', 'vừa...vừa', 'vừa...cũng' 중 하나가 선택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베트남어의 경우 문장의 통사적 구조와 의미에 따라 'cũng...cũng', 'vừa...vừa', 'vừa...cũng' 중 하나가 선택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문장 내에서 주어가 다르지만 서술어에 나열되는 내용이 비슷해야 하거나 선행절과 후행절의 서술어에 주제가 같으면 경우 'cũng...cũng'이 사용되며 주어가 같고 문장에 나열되는 요소의 성질이 같으면 이 경우에는 'vừa...vừa'가 사용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리고 같은 주어인데 선행절과 후행절의 내용이 다르거나 망설이는 상황을 표현할 때 'vừa...cũng'이 사용된다. 반면에 한국어 표현은 거의 '-도...-도'의 형식으로만 사용된다.

예문 (17)과 (18)의 경우 나열되는 요소는 각각 문장의 주어인 '바람'과 '비' 그리고 '그녀'와 '나'이다. 즉 서술어의 주어가 동일하지 않다. 따라서 베트남어에서는 나열된 요소는 'cũng...cũng'의 한정을 받고 있다. 예문 (17)과 (18)은 한국어 문장과 베트남어 문장 간의 통사적 차이가 거의 없는 경우로 볼 수 있다. 그 반면 예문 (19)는 동일 주어의 서술어가 나열되어 있어 'vừa...vừa'가 사용되었다. 예문 (20)과(21)는 한국어와 베트남어 대응문이 통사 구조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어에서는 '-도...-도'의 형식으로만 사용되지만 베트남어에서는 그렇지 않다.

지금까지 보조사 '도'의 용법과 베트남어 여러 대응 표현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 뿐만 아니라 한국인 베트남어 학습자에게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 IV. 결론

지금까지 보조사 '-도'의 기본 용법을 살펴보고 각 용법에 대응하는 베트남어 형태소를 살펴보았다. 보조사 '-도'의 기본 용법은 대부분 부사 'cũng'에 대응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부사 'cũng'의 기본 의미와 기능이 보조사 '-도'와 유사하여 전제문과 발화문 사이에 존재하는 의미적 논리성을 바탕으로 자신이 한정하는 성분을 담화 맥락의 동류에 포함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속성은 담화 맥락이나 전제문에 의존하지 않고는 문장에서 'cũng'이 한정하는 요소를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는 또한 부사 'cũng'의 사용도 문장 내의 통사 정보에만 의존할 수 없으며 담화 논리에 의해 결정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한국인 학습자나 베트남인 학습자에게서 자주 발견되는 '-도'의 담화 오류는 '-도'에 대응하는 모국어 형태소와의 비교를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교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보조사 '-도'가 주기능을 수행하여 선행어를 문맥에 존재하는 동류에 포함시키는 담화 기능을 수행할 경우 베트남어에 대응되는 문법 형태소는 역시 담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부사 'cũng'이다.

또한 'cũng'이 부사로 사용되어 쓰이는 거의 모든 환경에서는 보조사 '-도'가 쓰일 수 있음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두 형태소는 품사가 다르고 기능과 용법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베트남어 부사 'cũng'은 보조사 '-도'보다 더 적은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사 'cũng'의 담화 기능과 보조사 '-도'가 수행하는 담화 기능의 유사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한 문장 내에 두 가지 이상의 요소가 나열되어 동시에 강조될 경우 베트남어에서는 부사 'cũng...cũng'이 사용해야 되고 한국어에서는 '-도...-도'가 사용해야 한다.

보조사 '-도'는 다양한 기능을 가지지만 본 연구에서는 몇 가지 주기능에 한정하여 살펴보았다. 따라서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되기 위해서는 각 형태소의 기능과 용법에 대한 보다 철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 V. 참고 문헌

- [1] 윤영숙 (2007), 보조사 '-도'의 기능과 해당 중국어 형태소와의 비교, 18권, 국제한국어교육학회, pp.145-165.
- [2] 국립국어원 (2007),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2, 커뮤니케이션북스.
- [3] Bùi Thị Hoàng Anh (2016), *Nhìn lại các cách hành chức của cũng và vẫn*, TC. Ngôn ngữ, Số 12, tr.41-60.
- [4] Nguyễn Đức Dương (2000), *Nghĩa của “đều, cũng” và “vẫn”*, TC. Ngôn ngữ, Số 2, tr.15-25.
- [5] Đỗ Thanh (1999), *Từ điển công cụ tiếng Việt*, Nxb. Giáo dục.
- [6] Nguyễn Kim Thân (2008), *Cơ sở ngữ pháp tiếng Việt*, Nxb. Khoa học xã hội.
- [7]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
- [8]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수학습센터, 문법·표현 내용 검색 (<https://kcenter.korean.go.kr/>)
- [9] 위키낱말사전 (<https://vi.wiktionary.org/wiki/>).

# SO SÁNH CHỨC NĂNG CỦA TRỢ TỪ '-도' TRONG TIẾNG HÀN VÀ PHÓ TỪ 'CŨNG' TRONG TIẾNG VIỆT

Hoàng Nguyên Phương

**TÓM TẮT**—Mục đích của nghiên cứu này là tìm hiểu ý nghĩa và chức năng của trợ từ '-도' trong tiếng Hàn và so sánh với phó từ 'cũng' trong tiếng Việt. Trên cơ sở so sánh sự giống và khác nhau giữa trợ từ tiếng Hàn '-도' và phó từ 'cũng' trong tiếng Việt, người Việt học tiếng Hàn có thể hiểu rõ hơn về ý nghĩa và chức năng của trợ từ '-도' trong tiếng Hàn. Ngoài ra, nghiên cứu này còn giúp người Hàn học tiếng Việt hiểu và sử dụng tốt ý nghĩa cũng như chức năng của phó từ 'cũng' trong tiếng Việt. Trợ từ '-도' có nhiều chức năng khác nhau, nhưng trong nghiên cứu này chỉ giới hạn ở một số chức năng chính. Vì vậy, để tiến hành nghiên cứu sâu hơn, cần phải phân tích kỹ hơn về từng chức năng lẫn cách sử dụng.

**Từ khóa**—trợ từ '-도' trong tiếng Hàn, phó từ 'cũng' trong tiếng Việt



### Hoàng Nguyên Phương

호치민시 외국어 정보대학교 (HUFLIT) 졸업.

2008년부터 동방학부 한국어 전임 강사,

경영학박사 (인사관리).

연구분야: 한국어교육, 인사관리